

불법 알면 인생이 보람있다

박태원 교수가 쓰는

불교로 보는 인생

계산과 수행의 길

그 독특한 '생각의 힘' 때문인가? 인간의 이기심은 그 어느 동물보다도 집요하고 강렬하며 복잡하다. 짐승들의 이기심은 타고난 본능을 제한적으로 충족시키는 데서 그치게 마련이지만, 인간의 그것은 끝없이 번져 가는 욕망을 뒤쫓으며 자라자라 더해가기만 한다. 그 이기심들이 날카롭게 맞서는 사바세계 현상은 위험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안전한 세상으로 가꿀 수 있을까?

현실 감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계산의 길을 제시한다. 어차피 인간은 이기적이다. 양심은 공허한 꿈. 그런 것들에 호소하여 인간의 이기심을 조절해 보려는 것은 무지한 낭만에 불과하다. 이기심들의 충동을 조정하는 법과 제도를 고안하여 시행하라. 준법이 위법보다 자기에

계 훨씬 이익이 된다는 계산에 따라 행동하게 하면, 이기심의 밀림은 질서가 잡히게 마련이다. - 이른바 성악설의 기본 발상이다. 근대 이후 오늘날까지의 사회 운영과 교육의 기본 원리는 사실상 이 성악설이 주류를 형성한다.

그런데, 인간의 현실은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기적이지. 양심을 믿어달라고? 교활한 놀음! 양심은 무슨 얼어죽을 양심! 어렵지. 순진하게 그 말 믿었다간 나만 손해 볼 것은 뻔한 일. 허점만 보이면, 기회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나를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는 '위험한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적으로 맞서야. 손해도 안 보고 권리와 이익을 최대한 지키지. 법대로 하면 돼 냉정하게 계산해야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하나 하나 따지고 또 따져. 그래야 만만하게 안 보고 등쳐먹지 않지! - 성악설적 발상의 전형이다.

분명 현실적이다. 이 길의 세속적 효용성은 아무도 부인 못한다. 어찌 보면 우리 사회는 이 계산의 길에 더 능숙해질 필요도 있다.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 주장을 이 런저런 도덕적 명제들을 앞세워 쉽게 매도해 버리는 것은 자칫 또 다른 폭력일 수 있다. 끈질기게 이익으로 계산하고 협상하라. 세련되게, 합리적으로. 이기심의 합리적 조정은 사회 운영의 최소요

인간은 분명 날카롭게 이기적이다. 본능의 충동과 이기심이 일상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러나 말이다. 그 두터운 암흑 밑에서 언뜻언뜻 비치는 광명. 대부분은 무심코 지나쳐 버리는 그 빛을 눈여겨보는 이들이 있다. 비록 형편없이 초라한 몸이지만, 언뜻언뜻 희미하게 비치는 그 희망의 빛에 가슴 설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심지를 북돋우며 기쁨을 부어 그 빛을 환히 밝히

타산적 행동 메마른 사회 초래 수행하면 영혼 풍요롭게 살찌

칭이 아니던가?

그런데 어딘가 허전하다. 무엇이 인가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하다. 이기심들이 잘 교묘 정리된 사회, 합리적이고 세련된 이기주의자들의 광화, 더 이상 구할 것은 없는가? 공허하고 각박하지는 않은가? 계산할 넘어서는 우애와 사랑과 신뢰, 헌신과 희생, 이기심의 담담한 공간과 매마름을 초월한 영혼의 자유와 풍요는 어디서 구하는가? 인류의 영성(靈性)은 또 하나의 길을 마련한다. 수행의 길이다.

려 한다. 인간에 대한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신뢰와 긍정이다. 현실은 다분히 성악설적이라는 점을 그들도 안다. 이기심으로 계산하고, 이기심을 법과 제도로 조정하는 것이 당장 효과를 본다는 것을 그들도 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계산의 길에 안주하지 못한다. '공허한 낭만'이나 '비현실적'이니 하는 비판을 충분히 수긍하면서도, 그들은 멀리 길게 보며 존재 성숙의 길을 택한다. 성선설의 발상이다. 존재 성숙의 길은 반성과 자각

과 교육과 훈련과 자율을 요구한다. 그러다 보니 수계의 체계가 발달한다. 성악설에 입각한 계산의 길에서는 목격할 수 없는 풍요로운 존재 성숙의 수행 노하우들이 축적된다. 동양은, 그리고 불교는 이 수행의 길을 인생의 희망으로 제시한다.

이기심의 집단적 표현들로 인해 소란하다. 그러나 상투적 도덕 명제들로 그들의 주장을 쉽게 매도해서는 곤란하다. 과연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운 이가 얼마나 되는가? 각자의 이익을 충분히 따지고 계산하라. 이익 계산의 비정함과 지난함을 감내하라. 인내심을 가지고 계산의 길에 충분히 익숙해져라. 그러나 그 길에만 머무를 수는 없을 터. 인생의 깊은 보람과 풍요를 그 길에서 찾기는 어렵다.

계산으로 얻은 성취는 언제든지 내 걸을 떠난다. 그러나 자기 성숙만큼은 온전한 자기 몫으로 남는다. 걸을수록 채워지는 길은 계산이 아닌 존재 성숙의 길이다. '지혜와 자비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깨달음의 능력'에 힘 붙이는 길. 근원적 해방과 흔들림 없는 평안, 한 몸으로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키우는 길. 그 길에서 걸어간 만큼 이 든든한 내 몫으로 남는다.

두 길은 이질적이다. 그러나 어차피 동시에 걸어야 할 현실이다. 같지는 않지만 별개의 것도 아니라(一而二不異) 언젠가는 수행의 길에서 모든 것이 풀릴 수도 있을 터. (울산대 철학과)

“삼독심은 재앙부르고 청정심은 복밭 일구죠”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살아기면서 부족함이 없이 건강하게 장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며 저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이웃들이 사는 모습은 천태만상으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다를까요?

그것은 우리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과의 법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찍이 어느 종교에서도 전생과 인과의 법칙을 이처럼 분명하게 얘기한 바는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과 환경은 나의 전생과 밀접한 인연의 관계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생애 내가 맞을 인연은 내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불구의 몸을 받거나, 불의 사고를 당하거나, 불치의 병에 걸려 고통 받거나, 아무런 노력도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나, 고부간 부부간 또는 부모 자식간의 심한 갈등을 겪는다거나 하는 등 사람들이 살아 가면서 생기는 모든 장애나 재앙은 전생에 내가 지은 악연이 금생에 재앙으로 그 형태를 바꾸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위 주고 계십니다. <금강경> '농장업장분'에 말씀하시기를 과거 생애 무거운 과오를 갖고 태어나서 금생에 지독한 재앙을 만나게 되어있는 사람이라도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 그 복은 업장이 소멸되며, 설혹 금강경을 공부하는 동안 누가 나를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모욕하는 자가 나타나면 그 상황을 참고 넘기는 순간에 복은 업장이 절로 녹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명쾌한 말씀입니까?

법회중계

초하루 법회

<2000년 7월 7일>



성운 스님 <삼선사 주지>

중으나 싫으나 꾸준히
금강경 수지 독송하면
속세 쌓인 업장 사라져

그러면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면 그功德은 불가사의하며 무량아승지겁 동안 수행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진리란 법계에 두루 널려있고 마음이 청정한 자만이 진리와 함께 할 수 있으며, 마음이 청정한 사람이란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즉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남과 경쟁하며 살고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내가 잘났다는 생각을 모두 비운 사람을 뜻합니다. 이렇게 청정한 마음 가운데서 비로소 바른 지혜가 나타나게 되며 청정한 마음은 번민법계의 우주 진리와 하나라는 가르침을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한명우 기자 (mwhan@buddhopia.com)

최첨단 전자불전 시대 이끈다

미국 불교학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어떤 연구 방법론'으로 '어떤 불교'를 다룰 것인가에 맞춰진다. 여기에 선 우선 '연구 방법론'을 생각해 보자.

미국은 최첨단 컴퓨터 기술을 보유한 나라인 만큼, 현재 세계 불교학계가 뛰어돌고 있는 전자불전 시대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불교학자들 역시 이 시대를 맞아 경전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대장경 전체를 불교학의 연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다루지 못했던 수많은 경전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비교·연구 방법이 미국 불교학계에 도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불교학계는 이미 빨리 성장 전체와 그 주석서는 물론 티베트 장경의 많은 부분들을 전자화하고 CD로 제작·보급하고 있다. 또한 산스크리트·베트남 장경과 문헌도 입력하고 있으며, 한국·일본·대만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문대장경 전자화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의 불교학 <25> 미국 ⑦

이 분야의 국제적인 협의체인 전자불전회의(EBTI)를 조직했던 랭카스터(버클리대) 박사는 "이러한 기술과 방법의 향상은 한 언어권에 속한 경전 연구를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 언어 문자로 된 다양한 불교 문헌을 동시에 비교·검토할 수 있게 돼, 불교학자들의 연구 영역과 일반 불자들의

미국에서 처음으로 경전 번역 및 전자화 원력을 세운 사람은故 누마타(前 버클리대 교수) 박사다. 이를 위해 누마타 박사는 1984년 버클리에 '누마타 센터'를 설립했는데, 이 센터의 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139개의 주요 경전을 영역하여, 108권으로 엮어 일반 및 전자 출판할 예정이다.

다양한 문자경전 폭넓게 비교 연구 경전 보급 늘어 불교대중화 청신호

인식의 지평까지도 넓혀 주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사실 미국 불교학계에서 지금까지 고대어로 된 경전이나 불교 문헌은 거의 특정 학자들만의 전유물에 불과했다. 따라서 이 같은 환경에 힘입어 멀지 않은 장래에 상당량의 영역본 경전과 불교 문헌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계획에는 100여명의 전문 학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법화경>과 <정토삼부경> 등 10여권을 내놓았다. 이 사업은 100여년에 걸쳐 한문·티베트·산스크리트·베트남·발리 경전 전부를 영역한다는 것으로, 이것이 마무리되면 약 1000여권에 달하는 방대한 영역본 경전 전집이 간행될 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



◇만다라를 그리고 있는 미국인 불자 청소년들.

서 불교의 대중화를 이끈다는 과 급속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센터는 미국 내 불교학 발전을 위해 버클리대 외에도 하버드대·시카고대·하와이대·스미스대, 그리고 각종 불교학연구소 등에 석좌제도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매년 한 명의 불교학 교수를 초청하여 강의를 개설하고 있어, 점차 미국 불교학을 꽃피울 씨앗을 뿌리는 데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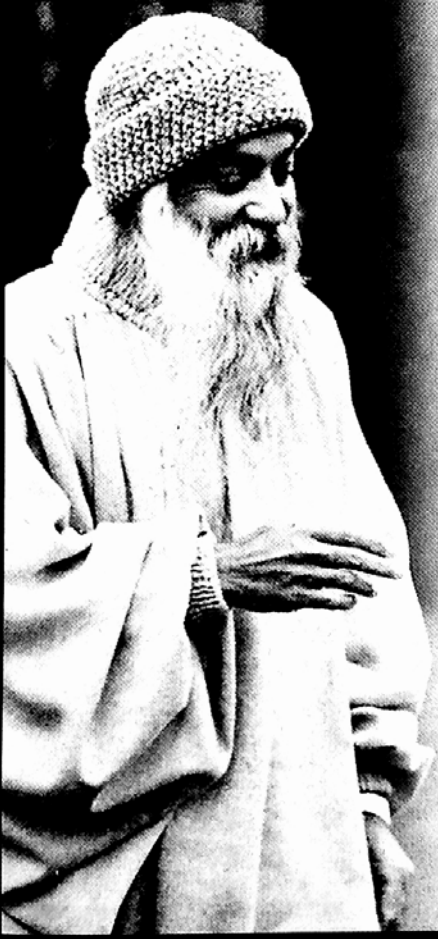
따라서 미국 불교학은 첨단 전자 기술을 이용한 문헌 해석 능력과 연구 방법론이 진보해, 문헌에 대한 비교·분석이 용이해지고, 그 결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불교학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접 학문과의 협조가

증가되면서, 불교학의 지평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대중성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학문으로서 불교가 생활로 스며들 수 있는 날이다.

미주불교학회 회장인 루에그(Ruegg) 박사가 취임식에서 "불교는 철학이자, 종교이며 또한 생활과 존재의 양식이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 체계이고 가치 체계이며, 이 체계는 불자들이 세계의 방대한 지역에서 그들의 세속적·정신적 삶을 추구하게끔 한다"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관찰과 정의는 타자로 대상화된 불교의 과거 모습과는 무척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opia.com)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리즈니쉬 강의 | 순민규 옮김 |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 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 01. 만트라 秘典 I
- 02. 만트라 秘典 II
- 03. 만트라 秘典 III
- 04. 만트라 秘典 IV
- 05. 법구경 I
- 06. 법구경 II
- 07. 금강경
- 08. 반야심경
- 09. 만트라, 더없는 깨달음
- 10. 심우도
- 11. 선심명
- 12. 허안 권(뫼니)대사 강론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카비르 강론
오쇼 리즈니쉬 강의 | 순민규 옮김 |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카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열광을 찾지 마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리즈니쉬 강의 | 순민규 옮김 |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곳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조주
- 18. 형 빈 기술을 실어서! 달연
- 19. 법의 연꽃! 이규
- 20.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 21. 내 사랑 인디아
- 22. 소중한 비밀! 카비르 강론
-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 24.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책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 taellpub@chollan.net
tel: 927-2831-4 fax: 924-3236

태일출판사
근로